

##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김 명 애\*·김 혜 진\*\*·김 영 숙\*\*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노인세대의 경우 전통적인 노부모 부양을 당연하게 여겨 경제적인 노후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였다(Hyun & Min, 2003; Koh, 1999).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핵가족화, 기혼여성의 취업증가,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등 여러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가족이 전적으로 노인을 수발하기 어려워 노인단독세대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Choi, 2002; Hyun & Min, 2003; Lim, 2001). 또한 이들은 퇴행성 만성질환 등에 의한 신체기능 약화로 타인에 대한 신체적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사회적인 부양책임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시설의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Atchley, 1991; Hyun & Min, 2003; Koh, 1999; Lee, 200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삶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고자 노인의 포괄적 욕구 해결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개인의 요양 및 치료의 필

요유무 등 건강상태 또는 비용부담능력에 따라 시설유형 및 시설입지에 대한 일반인의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다(Hyun & Min, 2003; Lim, 2001). 최근 정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구조사를 근거로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 노인복지시설을 10,478개소(정부지원 7,537개소, 민간 2,991개소)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3).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여 앞으로 기존과 다른 다양한 종류의 시설이 등장할 것이며 일반 노인들의 시설거주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Choi, 2002; Hyun & Min, 2003).

한편 한국은 예로부터 유교문화의 영향 아래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한 접촉과 자녀의 노부모 부양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규범으로 인식해왔기에 대가족 집단을 강조하고 상호의존과 결속력을 강조해왔다. 한국의 노인들은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 특히 아들과의 동거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해왔다(Social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 1994).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노인들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적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시설 이용률도 저조한 상황이다(Seo, Choi, Jo, Cha, & Choi, 1997). 이에 따라 시설거주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구축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nurkma@kmu.ac.kr)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4학년

투고일 2005년 4월 26일 심사위원회일 2005년 4월 27일 심사완료일 2005년 8월 18일

할 필요가 있다. 시설에서의 삶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는 고정관념이나 관점을 바꾸으로써 시설 노인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Kim, 1995; Kim & Lim, 2003).

시설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노인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시설노인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식유형과 특성을 확인한 것(Kim, 2002; Kim & Lim, 2003), 시설중사 사회복지사 및 외부 방문객의 관점에서 시설노인의 행동과 심리특성을 관찰한 것(Seo et al., 1997; Lee, Lee & Kwak, 2000; Lee, Yang & Lee, 2000),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인식하는 시설에 대한 태도나 자녀관계 만족에 관한 연구(Choi, 2002)가 있다.

이와 같이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설노인을 비롯한 일부 사회계층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인은 시설을 이용할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집단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의미의 주관성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노인간호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간은 각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관점에 따라 시설노인의 삶에 대해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Kim, S. Y., 2003; Lee, Park & Kim, 2002). Stephenson이 1953년에 창안한 Q-방법론은 인간의 태도와 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주관성을 상관분석과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특수한 통계기법이다(Brown, 1990; Kerlinger, 1986; Kim, 1992; Kim, S. Y., 2003; McKeown & Thomas, 1988). 즉, Q-방법은 개인이 대상에 대해 가지는 주관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연구자가 탐색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나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태도, 신념, 확신, 가치 등과 같은 주관적인 반응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Hwang & Choi,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태도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시설노

인의 삶에 대해 개인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인의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각 유형에 따른 시설노인의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인이 인지하는 시설 노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한다.
- 2) 일반인이 인지하는 시설 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 1) Q-표본의 구성

Q-모집단을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으로 정하고,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문헌과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Q-모집단 추출은 45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지를 배분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시설노인의 삶에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두 과정을 통해 추출된 자료들은 문항별로 진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여러 번의 반복적인 구독과 검토를 통해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느낌, 의견을 표현한 문장이라 생각되는 모든 진술문을 종합하여 Q-표본 선정을 위한 총 112개의 Q-모집단을 완성하였다.

수집된 Q-모집단을 Kim과 Lim(2003)이 분류한 범주를 바탕으로 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아 주제별로 공통적인 의미나 가치를 가지는 진술끼리 '가족 관계 측면, 가치와 의미, 대처, 사회적 측면, 시설 자체에 대한 견해,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의 총 7개의 주제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각 주제별 범주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각 진술에 대해 긍정·부정문을 작성하여 38개의 최종 Q-표본을 선택하였다.

#### 2) P-표본의 선정

P-표본 선정기준은 Q-표본을 읽을 수 있고 Q-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60명을 임의표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일반인이라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으로서 지역 사회 주민과 시설 거주인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대상자도 일반인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양한 대상자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별, 연령(40세 미만, 40~59세, 60세 이상), 거주지역 등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여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 3) Q-분류과정과 방법

Q-분류를 하기 전에 연구자를 소개하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익명성에 대한 보장과 설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Q-카드와 Q-표본의 분포도를 이용하여 9점 척도 상에 조사 대상자가 시설노인의 인식에 관한 진술문을 읽은 후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일정한 분포 속에 강제적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이때 양극에 놓인 진술문(+4, -4) 6개에 대해서 가장 동의하거나 또는 가장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각각 쓰도록 하였다. 또한 Q-분류 후 면접용 설문지를 통해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기록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의 처리는 P-표본으로 표집된 60명에 대한 자료 수집이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여 컴퓨터에 입력시켰다. 코딩은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항 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동의하지 않은 문항(-4)을 1점으로 하여 2점(-3), 3점(-2), 4점(-1), 중립 5점(0), 6점(+1), 7점(+2), 8점(+3), 가장 동의하는 문항(+4)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이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PC용 Quantl Program으로 처리하였다.

## III. 연구 결과

일반인의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6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38개의 Q-표본을 분류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일반인이 인지한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의미를 아이겐 값(eigen values) 1.0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입력시켜 산출한 결과 첫째 인자의 변량도가 37.01%, 두 번째 인자의 변량도가 5.53%로써 일반인의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을 42.54%로 설명하였다. 요인의 수를 2개로 하여 분석한 결과 요인 II에 부적 항목들이 25%를 초과하여 1개 요인이 추가되어 모두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제 1유형이 41명, 제 2유형이 8명, 제 3유형이 11명으로 구성되었고, 이들 3개의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제 1유형과 제 2유형은 .670,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439,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539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의 주관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각 유형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표준점수(Z-score)가  $\pm 1.00$  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고 또한 개별 진술항목에 대한 특정유형의 표준점수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 설명하였다. 또한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람이며, Q-표본 분류 당시 관찰 및 면담한 내용과 양극단에 선택한 진술문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 1. 제 1유형 : 기대형

제 1유형은 시설에서의 삶이 결코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 삶이 아니며, 시설이란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이고,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가치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이 유형을 '기대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문화생활을 누린다', '시설에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며 생활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 유형의 대상자가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가족이나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시설에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복이 없는 사람들이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제 1유형이 나머지 2, 3유형에 비해 높은 차이를 보

<Table 1> Positive items and negative items on type 1

No.	Item	Z-score
16	They enjoy being with peer	1 .62
35	They can enjoy a variety of cultural programs.	1 .60
30	They help and rely on one another.	1 .56
22	They maintain good health by getting the medical treatment they need.	1 .44
13	An institution is a convenient place with a help on daily life.	1 .21
24	They are much better than those who wait for their last moment lonely.	1 .11
7	Prompt action can be taken when an accident happens in an institution.	1 .10
27	They can devote their remaining years to something worthy.	1 .08
19	They can have an opportunity to look back upon their life.	1 .04
3	They are miserable and wretched.	-1 .30
9	They are neglected.	-1 .33
29	They are suffocating as if they were in an asylum.	-1 .35
2	The life in an institution is painful and hopeless.	-1 .36
11	They are unlucky.	-1 .36
5	To be institutionalized is a complete disgrace.	-1 .46
1	They are deserted by their wives and children.	-1 .59

인 항목은 ‘노인의 건강유지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1.774)’,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문화생활을 누린다(1.621)’,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한다(1.559)’, ‘심리적으로 편안한 삶이다(1.415)’, ‘시설에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며 생활한다(1.264)’ 등으로 제시되었다. 차이가 낮은 진술항목은 ‘소외된 사람들이다(-1.967)’, ‘가족이나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1.361)’, ‘정과 사랑에 굶주려 있다(-1.280)’, ‘복이 없는 사람들이다(-1.141)’,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 삶이다(-1.030)’ 등으로 시설 노인의 삶에 대한 견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 1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제 1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대상자를 중심으로 면담을 시행한 결과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2는 ‘같은 세대의 친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같은 사고로 같은 나눔을 나눌 수 있기에 행복할 것 같다’고 하였으며, 대상자 43은 ‘요양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체력관리 및 질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으며, 대상자 49는 ‘여러 명이 모여서 생활하니까 이야기 상대도 있고 심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2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희망적이고 소망이 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대상자 43은 ‘시설은 여생을 즐기기 위해 가는 곳이다’, ‘소외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어 낼 수 있

다’, ‘수용생활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제 1유형은 시설에서의 삶을 의미있게 여기고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며 긍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유형의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시설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여러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며 시설에서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 1유형의 대상자는 모두 41명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남성 18명, 여성 23명으로 남녀의 비는 비슷하였고, 결혼상태는 기혼 26명, 미혼 11명, 사별 4명으로 기혼과 사별의 비율은 다른 유형과 비슷하였으나 미혼의 대상자는 이 유형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연령은 40세 미만이 18명, 40~59세는 17명, 60세 이상은 6명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60세 이상의 대상자가 적게 나타났으며, 평균 나이는 41.60세로 사회적인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 제 2유형 : 독립지향형

제 2유형은 시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며, 시설에서의 삶은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생각

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길 원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인 스스로 시설 이용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이 유형을 ‘독립지향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동의를 모인 진술문은 ‘자식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시설에 들어간 사람이다’, ‘자식들 눈치보며 사는 것보다 시설에서의 생활이 더 낫다’, ‘시설에 있다는 것은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 유형에서 가장 낮은 동의를 모인 진술문은 ‘시설에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갑갑한 수용소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이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제 2유형이 나머지 1, 3유형에 비해 높은 차이를 보인 항목은 ‘시설에 있다는 것은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다(1.813)’, ‘자식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시설에 들어간 사람이다(1.651)’,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1.339)’, ‘남은 여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1.337)’, ‘고급 노인 시설에서 호화롭게 사는 노인이 부럽다(1.212)’ 등으로 제시되었다. 차이가 낮은 진술항목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이다(-2.838)’, ‘거부감이 앞선다(-1.960)’, ‘갑갑한 수용소의 생활과 마찬가지로이다(-1.942)’, ‘시설에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1.806)’, ‘가정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1.066)’ 등으로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견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 2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제 2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대상자를 중심으로 면담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3은 ‘나의 경제사정이 어느 정도 상위급 노인시설에서 살수는 있으나 보다 더 좋은 시설에 입주할 경제력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하였으며, 대상자 58은 ‘아들 눈치보고 뒷바라지하기 싫어서 내가 들어왔는데 부끄러울 것 없어’라고 하였다.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신이 자원한 일이고 환경이 좋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수치스러운 것이 전혀 없다’, ‘가족이나 자식이 면회를 다녀갈 수 있어 서로 불편함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대상자 58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것 보다 이곳에 오니 편하고 좋아.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라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제 2유형은 시설에서의 삶에 대해 떳떳하게 여기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 보다 시설에서의 삶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개성이 뚜렷하고 자신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건강문제로 인해 자식에게 부담이 되거나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생활하는 것 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자의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시설에서의 생활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제 2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모두 8명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남성 5명, 여성 3명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Table 2> Positive items and negative items on type 2

No.	Item	Z-score
31	They choose to live in an institution because they do not want to burden their children.	1 .60
36	Life in an institution is better than uneasy life at home with children as an unwelcome guest.	1 .30
21	To live in an institution is nothing to be ashamed of.	1 .27
7	Prompt action can be taken when an accident happens in an institution.	1 .20
24	They are much better than those who wait for their last moment lonely.	1 .16
27	They can devote their remaining years to something worthy.	1 .12
32	Until the last moment they pursue happiness in life.	1 .10
23	They need religion and faith.	1 .09
11	They are unlucky.	-1 .03
6	They don't get proper attention and care.	-1 .09
10	Their family break off with them.	-1 .28
14	I disapprove of institutionalization.	-1 .51
26	They have a longing to return home.	-1 .97
29	They are suffocating as if they were in an asylum.	-2 .01
5	To be institutionalized is a complete disgrace.	-2 .27

조금 더 많았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6명, 사별이 1명, 별거 1명으로 구성되며 종교를 가진 사람이 7명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7명, 자신이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1인당 부담 할 수 있는 비용은 200만원 이상이 1명이었고, 50만원 미만이 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평균 나이는 62.12세로 3가지 유형 중 평균나이가 가장 높고,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3. 제 3유형 : 시설거부형

제 3유형은 시설이란 효도의 개념이 약화되어 발생한 장소이며, 시설에서의 삶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시설에서 사는 것 보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이 유형을 ‘시설거부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동의를 모인 진술문은 ‘효도의 개념이 약화된 것을 의미한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이다’, ‘거부감이 앞선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 유형에서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삶이다’, ‘시설에 있다는 것은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다’, ‘남은 여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제 3유형이 나머지 1, 2유형에 비해 높은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갑갑한 수용소의 생활과 마찬가지로이다(2.890)’, ‘거부감이 앞선다(2.805)’,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이다(2.703)’, ‘시설에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2.392)’ 등으로 제시되었다. 차이가 낮은 진술항목은 ‘시설에 있다는 것은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다(-2.622)’, ‘남은 여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

(-2.615)’, ‘심리적으로 편안한 삶이다(-2.460)’, ‘끊임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여생을 마감한다(-2.275)’ 등으로 시설노인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제 3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제 3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대상자를 중심으로 면담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28은 ‘자식이나 손자가 보고 싶을 테지만 그곳에서는 마음대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였으며, 대상자 52는 ‘그냥 시설에 산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싫다는 거다. 아무리 못살아도 내가 내 집에서 살아야지 그런데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보면서 사는거 생각하면 거부감 든다’고 하였다.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45는 ‘시설을 신뢰할 수 없다’, ‘시설에서 또래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고 하였으며, 대상자 28은 ‘혼자 외롭게 버려진 것이므로 가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시설이 아무리 호화로우도 가족이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사는 것이 부럽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이 생활하지 못하고 규칙이나 규율을 따라야 해서 군대생활과 비슷할 것 같다’고 하였으며, 대상자 52는 ‘시설에서 살면 그곳의 규칙에도 엄매여야 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눈치도 봐야해서 편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인데 가들 마음 내가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주는데? 집에서 사는건 자식들 눈치 보는게 아니고 가들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내가 살면서 배운 지혜 같은 것도 어려울 때 가르쳐 주는 거지 눈치 보는 거라고 생

<Table 3> Positive items and negative items on type 3

No.	Item	Z-score
18	To be institutionalized means that the concept of filial duties has been weakened.	2 .20
26	They have a longing to return home.	1 .73
14	I disapprove of institutionalization.	1 .67
37	They cannot feel the attachment and comfort of home.	1 .56
9	They are neglected.	1 .49
29	They are suffocating as if they were in an asylum.	1 .21
38	They want to spend as much time as possible with their own family.	1 .06
13	An institution is a convenient place with a help on everyday life.	-1 .02
4	I envy the elderly who live in deluxe institutions.	-1 .10
32	Until the last moment they pursue happiness in life.	-1 .27
27	They can devote their remaining years to something worthy.	-1 .51
21	To live in an institution is nothing to be ashamed of.	-1 .72
28	They feel comfortable.	-2 .00

각 안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제 3유형은 시설에서의 삶에 대해 수직스럽게 여기고 시설에서는 가정에서보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유형의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시설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하므로 불편하고, 많은 규율에 얽매인 갑갑한 수용소의 생활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시설에서 어떤 문화생활도 누릴 수 없으며, 호화로운 시설에서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시설에서의 생활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버림받았거나 복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여기며,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제 3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모두 11명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남성 6명, 여성 5명이고, 39세 이하 4명, 40~59세 3명, 60세 이상 4명으로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가 7명, 종교를 가지지 않은 대상자는 4명이었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7명, 농어촌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4명이었다.

#### IV. 논 의

2000년을 기점으로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가족의 부양의식도 약화되면서 노인들은 더 이상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노인들의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실제 시설에 거주하는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인은 아직까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으로 시설입소를 통한 보호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Choi, 2002). 따라서 시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노인의 삶에 대해 일반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주관성을 연구하는 방법인 Q-방법론을 통해 일반인의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의 유형과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일반인의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자 선정시 연구 방법이 대상자들에게 생소하고, 서술형의 대답을 요하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부담감을 많이 가져 끝까지 마무리하는 데 많은 지지가 필요하였다.

기대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대부분 현재 사회 활동이 왕성한 나이의 사람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시설 이용이 불가피할 것이라 여긴다. 이들은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의 시설 수준과 복지 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낮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시설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유형은 시설에서의 삶은 새로운 경험이며, 시설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좀 더 폭넓게 유지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설에서 그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진에 의해 질병 치료와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 여기며,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유지와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Kim과 Lim(2003)의 연구에서 낙관적 긍정형에 속한 간호대학생과 유사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시설에서도 노인들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고 긍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비슷한 또래가 모이는 시설에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소속감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Kim(2002)의 연구에서 자기관리 추구형에 속한 시설거주노인을 보면, 입소 결정은 자신의 삶을 위해 본인이 결정한 것이며, 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다른 노인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여 시설거주 이전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생활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형에 속한 사람이 인식한 시설노인의 삶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유형의 경우, 시설운영 및 계획에는 최저 생활보장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장소 및 물품을 마련하는 등 간호 실무에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간호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독립지향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세 가지 유형 중 비교적 높은 연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설노인의 삶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시설이용에 대해 많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거나 눈치를 보는 것 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며, 자신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

설은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의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므로 시설에서의 생활이 떳떳하고 정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3번 대상자의 경우 자식이 없어 노후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58번 대상자는 건강문제로 시설에 입소하였고 현재 아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으며 왕래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27번 대상자는 딸이 있지만 건강문제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실비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회통념상 전적으로 아들에게 노부모의 부양책임이 있기에 딸은 경제적 능력이 특별히 크지 않는 한 결혼 후 남편의 노부모 부양에 치중하고 자신의 노부모는 양로원에 입소시키는 절차에 따라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Lee, I. S. 등(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이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생활보조를 바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그 동안 공급된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이 획일화 되어있어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Hong(2001)이 제시한 것과 같이 특수요구를 갖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시설이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거부형은 시설이란 규칙과 규율을 지키며 억눌린 삶을 살아야하고 인생의 즐거움은 전혀 맛 볼 수 없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사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거나 버림받은 사람들이며 시설에서의 생활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또한 자신은 가족이 있어 결코 시설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는 Kim과 Lim(2003)의 연구에서 현실적 고통감내형에 속한 간호대학생과 같이 시설에서의 삶을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 유형의 경우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양로시설 입소 노인과 일반인의 활발한 왕래를 통해 시설노인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Lee, I. S. 등(2000)과 Lee, Y. S. 등(2000)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

과 같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육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활동 중 일부를 양로시설에서 진행함으로써 시설입소 노인의 장점을 보여주고 서로 다양한 교류를 갖게 하여 일반인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시설 입소노인에게도 자부심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Kim, J. H.(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시설복지에 대한 대안으로 재가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가복지의 한계를 넘어선 병약한 노인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가복지와 시설복지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루어져야 하며(Kim, J. H., 2003; Mottram, Pitkala, & Lees, 2004) 지역사회의 단절감 및 고립감을 없애고 시설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주지 않는 분리와 통합이 적절히 조정, 연계 될 수 있는 노인의료체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Yu & Yang, 1998).

각 유형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기대형과 독립지향형은 노후에 혼자 지내는 것보다 시설에서의 삶을 좀 더 가치있게 여기고 사고에 대한 대처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등 시설노인의 삶에 대해 유사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 유형은 시설에서 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크게 부각시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의료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시설거부형을 포함한 세 유형에서 '올바른 보살핌이나 배려를 받지 못한다'는 항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공통적으로 나타내었으나 이들 간에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일반인의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 유형은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기대형은 시설노인의 삶에 대해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독립지향형은 자신이 행동의 주체이며, 시설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시설이용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시설거부형은 전통적인 가족 유형을 고수하고 시설노인의 삶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시설이용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각 유형은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개인의 독특한 생각과 개성을 나타내며 서로 독립적인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



에 따라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간호사정과 간호이행 시 각 개인의 관점에서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의 유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시설 노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간호실무와 교육측면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인의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의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개개인의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각 개인에게 적절한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시설 입소문제에 있어 상담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을 객관화하기에 유용한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Q-모집단은 38개의 Q-진술문으로 구성되었으며, P-표본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60명의 일반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일반인의 시설 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 1유형은 기대형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시설을 이용할 상황이 되었을 때는 시설의 질이 향상되어 있을 것이라 여기는 등 시설노인들의 현실 상황을 초월하여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유형이다.

제 2유형은 독립지향형으로 시설 입소에 대한 결정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으며, 시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설에서의 삶을 당당하게 여기는 등 시설 이용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이다.

제 3유형은 시설거부형으로 시설에서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시설이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시설에서의 삶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이라 여긴다.

이상의 결과는 일반인의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에 따른 그들 각각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노인에 대

한 인식 전환 교육이나 시설 입소 상담에 있어 필요한 참조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의 각 유형에 적합한 인식교육이나 시설 입소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 유형별 교육 도구나 상담 기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인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인식 연구를 통해 시대와 문화의 흐름의 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tchley, R. C. (1991).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6th ed.)*.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s Company.
- Brown, S. R. (1990). Q Methodology and Communication: Theory and Applications. *Electro J Commu*, 1(September).
- Choi, S. H. (2002). Assessing and comparing of attitude toward institution liv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elderly and the Japanese elderly in institutions. *J Korea Geronto*, 22(2), 163-182.
- Hong, H. O. (2001). Review of commun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the UK. *J Korean Home Manag*, 19(4), 49-68.
- Hwang, S. M., & Chol, E. H. (2002). The implementation of Q-methodology in psychological research and the interpretation of its result : The duet of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KSSSS*, 7, 4-24.
- Hyun, O. S., & Min, M. S. (2003). Analysis on Location Preference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by Types. *J Welfare Aged*, 22, 243-265.
- Kerlinger, F. N. (1986).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NY: CBS College Publishing.
- Kim, M. A., & Lim, S. H. (2003). Nursing

-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Life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Keimyung J Nurs Sci*, 7(1), 43-54.
- Kim, H. K. (1992). Understanding of Q methodology for the subjectivity study. *Seoul J Nurs*, 6(1), 1-11.
- Kim, J. H. (2003). A Study on Home-Based Care and Construction of its Infrastrucure. *The J Korean Studies*, 18, 69-106.
- Kim, S. C. (1995).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Policy of Welfare for the Aged*.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 Y. (2002). A study on life style types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J Korea Geronto*, 22(2), 61-74.
- Kim, S. Y. (2003). Study on life type of elderly people. *J Korean Geronto Nurs*, 5(2), 147-157.
- Koh, Y. K. (1999). A Study on the management problem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nursing homes. *Kangnam University Collected Papers*, 34(2), 119-150.
- Lee, A. K. (2002). *Needs of caregivers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for nursing home facilities*.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I. S., Lee, Y. H., & Kwak, K. W. (2000). Behavioral aspects of nursing home residents. *J Welfare Aged*, 8(1), 149-166.
- Lee, K. J., Park, I. S., & Kim, B. H. (2002). A Subjectivity Study on the meaning of aging for elders. *J Korean Fund Nurs*, 7(2), 271-286.
- Lee, Y. S., Yang, S. K., & Lee, J. S. (2000). Behavioral aspects of nursing home residents (2). *J Welfare Aged*, 9(1), 219-238.
- Lim, C. S. (2001).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subject of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of Korea. *Hannam Univers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llected Papers*, 32, 123-135.
- McKeown, B. and D. Thomas. (1988). *Q-Methodology*. Newbury Park. CA: Sag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3). 2002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ottram, P., Pitkala, K., Lees, C. (2004). *Institutional versus at-home long term care for functionally dependent older people*. Cochrane Effective Practice and Organisation of Care Group.
- Seo, I. S., Choi, I. L., Jo, Y. H., Cha, K. M., & Choi, Y. H. (1997). The life time and the life actual condition of the elderly residents at welfare facilities. *J Res Geronto*, 6, 19-31.
-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 (1994). *Age of Welfare*. Seoul: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
- Yu, Y. M., & Yang, N. W. (1998). A study on the types and present statistical conditions of health c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Korea. *J Korea Institute Healthcare Architec*, 4(7), 31-38.

- Abstract -

## General Perception about the Life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Kim, Myung-Ae\*Kim, Hye-Jin\*\*  
Kim, Young-Suk\*\*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plore general perception types about the life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and thu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nursing intervention for them.

**Method:** This study used a Q methodology. A Q sample was developed through a review of

---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 Student,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related literature and descriptions of ordinary people about the life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Thirty-eight statements made up the finalized Q sample. **Results:** The results revealed three different types of the general people's perception about the life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Type 1 is an optimistic group which expects modernized institutions. This group focuses on social relationships enjoying a variety of cultural life. Type 2 is a positive group which pursues independence. They are open-minded about the use of the institution and are not ashamed of the life in the institution. Type 3 is a conservative group which disapproves

institutionalization. The members of this group strongly disapprove the institution itself and have negative views on institutionalization. These three types share certain common features while having distinctive characteristics showing individual views and traits about the life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Conclusion:** This study will provide us the basic data to understand institutionalized elderly and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for them.

Key words : Q methodology,  
Institutionalization, Elderly